

# 루블화 변동환율제 조기 시행에 대한 반응 및 전망

'14. 11. 12(수)  
모스크바사무소

□ 러 중앙은행은 11월 10일 성명을 통해 통화바스켓 제도와 정책적인 시장 개입을 폐기한다고 발표

⇒ 2015년 1월로 예정되었던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조기 시행

- 중앙은행은 유로화와 달러화에 연동하여 최대 변동폭을 제한하고, 일정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방어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음
- 지난주 일 최대 외환시장 개입한도를 3억 5천만 달러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(11.5일)한데 이어, 통화바스켓 제도 및 정책적 시장개입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
  - 조치 배경에는 재정수입의 50%를 차지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(천연가스 및 원유) 하락 및 외환보유고 소진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.
  - 국제유가(브렌트)는 배럴당 107달러에서 87달러(10월)로 약 19% 감소
  - 러 외환보유고는 연초 5,100억 달러에서 4,400억 달러(10월)으로 약 14% 감소

□ 중앙은행 발표에 대한 현지 반응

- (현지언론 종합)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, 중앙은행의 갑작스러운 변동환율제 조기 도입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고, 장기적으로는 루블화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(긍정 의견) 큰 폭의 금리인상이나 변동환율제도 조기 시행 등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기 흐름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

- 또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러 재정의 펀더멘탈 약화로 이어지는 부담 경감.
- (부정 의견) 추가적으로 루블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락 속도와 폭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담 가중
-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증가했고, 가계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상승

## □ 향후 전망

- 중앙은행 발표 직후 대달러 루블화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으나, 루블화 약세 추세는 2015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.
-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은 달러당 50루블 대의 상승은 받아들이는 분위기며, 시기나 추가 하락폭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음.
- EU의 제재 해제 여부('15.3.)와 국제 유가가 중요 변수라는 의견은 일치
-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개입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외환보유고 소진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정부 리스크(지불유예 및 채무불이행)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
- 향후 러시아 정부의 금융정책은 환율관리 보다는 물가상승 억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.
- \* 푸틴 대통령, 베이징 APEC 회의에서 “루블화 파동에 대해서는 재무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,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타케팅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” 이라고 언급(11.10).
- \* 울루카예프 경제개발부 장관, “러시아도 서방의 제재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, 환율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제재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”고 언급(11.9.)

/끝/

자료원: 현지언론(Moscowtimes) 기사 및 러 중앙은행 자료 등